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성취동기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other's Self-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on Children's Self-Efficacy

박현정 · 이경님*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Park, Hyun-Jung · Lee, Kyung-Nim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mothers' self-efficacy,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on children's self-efficacy. Subjects were 591 fifth- and sixth-graders and their mothers in Busan. Statistics and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Cronbach's alph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Several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ny difference was not found by sex in children's general and total self-efficacy. Girls' social efficacy, however, was higher than boys'. 2) Achievement motivation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and was the first positive contribution factor to the self-efficacy of both sexes. 3) On boys' self-efficacy, mothers' own had an indirect positive effect through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ir parental role 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direct or indirect, through their 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and the boys' achievement motivation; also mothers' 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had an indirect positive effect through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ir controlling parenting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4) On girls' self-efficacy, mothers' own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and their parental role efficacy had an indirect positive effect through their aff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s and the girls' achievement motivation; also mothers' 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had a positive effect, direct or indirect, through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controlling parenting had a negative effect, direct or indirect.

Key Words : self-efficacy,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chievement motivation.

I. 서론

오늘날과 같은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이 요구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인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바람직한 학업성취, 원만한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Bandura, 1995/2004). 자기효능감은 자신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로 정의된다(Bandura, 1993).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아동은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이며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발달시키고 일상적인 생활스트레스에도 강하여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한다(차인수, 2001). 이들 아동은 학업과제의 수행시 자신이 수행할 활동을 적절히 선택하여 노력을 투입하고, 끈기있는 인내심으로 오랫동안 과제에 지속하여 높은 수준의 수행 결과를 얻게 된다(황경숙, 2002).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또래간의 인기도 높아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을 보이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게 되어 잘 적응하게 된다(Bandura, 1995/2004).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아동은 학업성적이 부진

* Corresponding author: Lee, Kyung-Nim
Tel: 051) 200-7311, Fax: 051) 200-7312
E-mail: krlee@daunet.donga.ac.kr

하며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수동적이고,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걱정과 불안이 앞서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진은영, 2001). 또한 문제해결에 있어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며, 환경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정서적 흥분이 높고 무력감에 쉽게 빠지며 문제나 상황을 더 어렵게 인식한다(장미선, 2002). 이처럼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지고 있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의 성은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전체적으로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으나(박정근, 2002; 우희정, 1993; 윤병두, 1994)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이은숙, 1994) 및 그 하위요인에서 각각 남아와 여아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우희정, 1993; 홍혜영, 1995)도 있어 대체로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으로 성취동기가 제시되고 있다. 개인의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행동특성중의 하나인(Shaffer, 1999) 성취동기는 아동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내적의욕 또는 자발적 의지를 말하며, 수행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황경숙, 2002).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구분되는 행동특성을 보인다(McClelland, 1961). 높은 성취동기를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낮은 성취동기의 개인들보다 도전적 과제를 선호하고,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과 성취수행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지각한다. 그러므로 성취동기가 높은 개인들은 그들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성취동기가 낮은 개인들은 그들의 능력을 낮게 지각하며 과제를 성취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즉, 성취동기에서의 차이가 자신의 능력지각의 차이를 가져오며 그 결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본다(장희숙, 1994). 실제 아동의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취동기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으며, 성취동기가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마경희, 1995; 박정근, 2002; 황경숙, 2002). 그러므로 아동의 성취동기는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예언변인이라 볼 수 있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으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아동

이 생후 최초로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오랜기간 동안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대상이 어머니이다. 통제신념의 세대간 전수의 모델링 가설(Bandura, 1995/2004)에 의하면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의해 학습될 수 있다. 즉 어머니는 아동의 일차적 모델로 작용하므로 아동은 어머니의 많은 행동 및 태도를 내재화하여 모방학습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혹은 기대는 자녀에게도 내재화되어 학습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자기효능감 형성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밝힌 연구는 없었으며 다만 우희정(1993)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을 비롯한 심리적 요인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계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모방학습의 정도가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접근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우희정(1993)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진은영(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높은 포부 수준을 정하여 성취를 격려하고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문혁준(199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공인숙(1989)의 연구에 의하면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균형 잡힌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유형의 자녀가 통제가 강한 권위적 양육행동유형의 자녀에 비해 높은 유능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의 기초가 됨을 시사한다.

위에서 살펴본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성취동기,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신숙재(1997)는 남아의 경우 부모효능감은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Graybill(1978)은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아존중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지적하면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수용적이라 하였고, Teti와 Gelfand(1991)는 낮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어머니는 자녀에게 냉담한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두 변인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성취동기의 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최경숙(1982)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애정·자율적인 양육행동이 거부·통제적인 양육행동에 비해 아동의 높은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인(2000)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양육행동이 자율지향적인 양육행동에 비해 자녀의 높은 성취동기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즉 높은 성취동기를 가진 아동은 부모로부터 보다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부모의 기대는 아동의 성취동기를 높여준다는 것이다(정인, 2000).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녀의 성취동기와 부모 양육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민숙정(1990)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합리지향적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애정지향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할 수 있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었지만 어머니 자신의 특성은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Mussen et al. 1974)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신숙재, 1997),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을 비롯한 심리적 요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우희정, 1993), 또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우월성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이은숙, 1994)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취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정인, 2000; 최경숙 1982)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성취동기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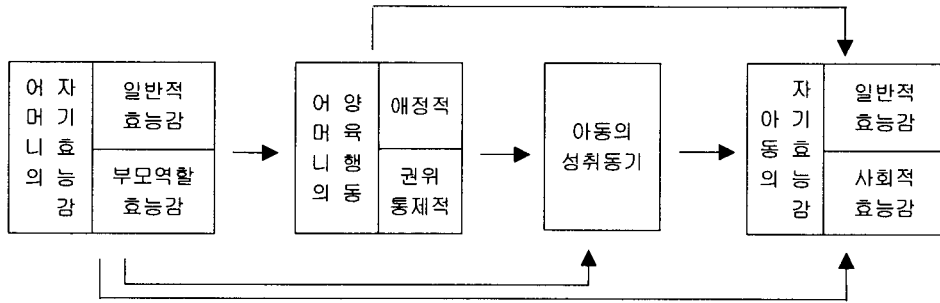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 아동의 성취동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에는 다음과 같은 인과모형이 가정된다. 첫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를 통하여 아동

의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취동기를 통하여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을 포함하는 어머니 특성, 아동의 성취동기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은 각각 개별적으로 검증되었으나 이들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으며 나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들 각 변인들의 관계를 토대로 인과모형을 구성하여 그 인과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성취동기,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간의 인과모형을 검토하는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갖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의의 있다고 본다. 즉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모방학습의 정도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의 크기가 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우희정, 199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김정애, 1999; 이숙, 1998) 남아와 여아를 따로 분석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행동, 아동의 성취동기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과 인과효과를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아동의 성취동기 및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자기효능감(일반적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및 전체효능감)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일반적 효능감, 부모역할효능감), 양육행동(애정적 양육행동,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경로는 성에 따라 어떠한가?
 - 2-1.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행동 및 아동의 성취동기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은 성에 따라 어떠한가?
 - 2-2.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행동 및 아동의 성취동기의 인과효과는



[그림 1]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가설적 인과모형

성에 따라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및 양육행동,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직·간접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가설적 인과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신뢰로운 자료를 얻기 위해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이 가능한 시기가 아동중기 이후로 보고 있으며(Harter, 198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의 많은 문항 수에 적절히 답을 할 수 있는 연령을 5학년 이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아동과 그들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4개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591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남자는 296명(50.1%), 여자는 295명(49.9%)이고, 5학년이 289명(48.9%), 6학년이 302명(51.1%)이었다.

<표 1>에서 연구대상 아동의 아버지 연령은 41~50세가 440명(7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세 이하가 143명(24.3%)이었으며, 어머니 연령은 40세 이하가 359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1~50세가 230명(38.9%)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296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대졸 이상이 271명(46.0%)이었으며,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396명(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대졸 이상이 261명(27.3%)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상공업, 서비스업이 248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 기술직이 221명(37.7%)이었으며, 어머니의 취업

<표 1>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

(N=591)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학년	5학년	289(48.9)	아버지 직업	대기업주, 전문직	50(8.6)
	6학년	302(51.1)		사무직, 기술직	221(37.7)
성	남아	296(50.1)		상공업, 서비스업	248(42.2)
	여아	295(49.9)		피고용 기능인	83(14.1)
아버지 연령	30-40세	143(24.3)		무직	16(2.7)
	41-50세	440(74.8)		기타	11(1.9)
	51세이상	5(0.9)	어머니 직업	취업 유	251(42.5)
어머니 연령	30-40세	359(60.7)		취업 무	340(57.5)
	41-50세	230(38.9)	경제수준	매우 부유한편	4(7)
	51세이상	2(0.3)		약간 부유한편	58(9.8)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21(3.6)		보통	454(76.8)
	고등학교 졸업	296(50.3)		약간 가난한편	62(10.5)
	초대졸 이상	271(46.0)		매우 가난한편	13(2.2)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34(5.8)			
	고등학교 졸업	396(67.0)			
	초대졸 이상	261(27.3)			

유·무는 취업 무 340명(57.5%) 취업 유 251명(42.5%)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보통 454명(76.8%), 약간 가난한편 62명(10.5%), 약간 부유한편 58명(9.8%)으로 지각하였다.

2. 연구도구

1) 아동의 자기효능감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홍혜영(1995)의 아동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적 효능감 17문항, 사회적 효능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효능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로는 “나는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한다” 등이 있다. 사회적 효능감은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로는 “내가 사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간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반적,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일반적 효능감 .87 사회적 효능감 .66 전체 효능감 .87 이었다.

2) 성취동기

아동의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황경숙(2002)의 아동의 성취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취동기 문항의 예로는 “내가 어떤 일을 맡아야 할 때는 아주 잘하고 싶다” 등이 있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8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이 제작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중 애정적 양육행동과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 자신의 보고보다 아동의 지각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Jessop, 1981) 아동용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9문항,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9문항 모두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아니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거나 권위통제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애정적 양육행동 .91이며,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이 .77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herer와 Maddux(1982)의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에 관한 문항과 우회정(1993)의 부모역할 효능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이은숙(1994)의 어머니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적 효능감 16문항, 부모역할 효능감 20문항 모두 36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의 예로는 “어떤 일을 계획하면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등이 있다. 부모역할 효능감의 예로는 “자녀를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정말 그렇다’의 4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과 부모역할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 .84, 부모역할 효능감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2004년 6월 28일에 측정도구 문항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연구절차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시내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5, 6학년 6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아동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측정도구의 문항은 초등학교 교사와 의논하여 수정·보완하고 본조사 도구를 완성하였다. 어머니와 관련된 측정도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조사는 2004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부산시 수영구, 해운대구, 사상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4개교에서 5학년 12학급, 6학년 12학급 모두 24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자가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 방법을 설명한 후 모두 700명의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하게 된 자료와 아동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가 한 쌍이 되지 않는 자료들은 제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591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0.0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은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검토한 후 중다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차이

성에 따라 아동의 일반적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및 전체 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아동의 일반적 효능감과 전체 자기효능감은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아의

사회적 효능감이 남아의 사회적 효능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사회적 효능감이 남아의 사회적 효능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경로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와 전반적인 변수간 상관관계 및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한 결과는 남아 <표 3>, 여아 <표 4>와 같다. <표 3>과 <표 4>에 의하면 각 독립변인간 상관계수가 남아 .537 여아 .472를 넘지 않았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회귀분석에 투입된 각 변인의 VIF값을 통해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1.228~1.632, 여아의 경우 1.272~1.542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²⁾

<표 2>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차이

변인	남아(N=296)		여아(N=295)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반적 효능감	59.01	(9.66)	59.46	(9.33)	.558
사회적 효능감	20.43	(4.16)	21.46	(4.08)	3.025**
전체 효능감	79.40	(12.28)	80.94	(11.57)	1.493

**p <.01

<표 3>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남아)

	1	2	3	4	5	6
1.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	1.00					
2.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	.537***	1.00				
3. 애정적 양육행동	.096	.139*	1.00			
4.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032	-.051	-.346***	1.00		
5. 아동의 성취동기	.227***	.131*	.513***	-.070	1.00	
6. 아동의 자기효능감	.081	.170**	.404***	-.237***	.490***	1.00
평균	47.57	61.95	31.59	22.82	72.46	79.40
표준편차	6.47	6.59	7.57	6.50	10.18	12.28

*p<.05, **p<.01, ***p<.001

2) 만약 VIF값이 10이하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본다(양병화, 2002).

<표 4>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여아)

	1	2	3	4	5	6
1.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	1.00					
2.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	.465***	1.00				
3. 애정적 양육행동	.073	.179**	1.00			
4.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013	-.068	-.472***	1.00		
5. 아동의 성취동기	.179**	.199**	.378***	-.014	1.00	
6. 아동의 자기효능감	.187**	.144*	.457***	-.269***	.575***	1.00
평균	47.97	62.31	32.64	22.31	74.27	80.94
표준편차	6.39	7.07	8.15	6.58	9.42	11.57

*p<.05, **p<.01, ***p<.001

1)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아동의 전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에 따라 각 변인들을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속변인과 그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남아 <표 5>, 여아 <표 6>과 같다.

(1) 남아에 대한 회귀분석

<표 5>에 의하면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경우, 애정적 양육행동에 부모역할 효능감($\beta=.170$,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2.9%를 설명 하였다. 즉, 어머니는 부모역할 효능감이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데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 부모역할 효능감이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아의 성취동기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의 회귀분석 결과, 남아의 성취동기에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beta=.519$, $p<.01$),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beta=.215$,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29.1%를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남아의 성취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역할 효능감과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은 남아의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행동 및 성취동기가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성취동기($\beta=.455$, $p<.001$),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beta=.150$, $p<.05$), 권위통제적 양육행동(β

<표 5>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어머니의 양육행동				남아의 성취동기		남아의 전체효능감	
	애정적		권위통제적		B	β	B	β
	B	β	B	β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	.002	.002	.099	.096	.335	.215**	-.224	-.119
부모 역할 효능감	.204	.170*	-.105	-.101	-.106	-.067	.284	.150*
양육행동 애정적					.698	.519**	.147	.090
권위통제적					.160	.104	-.261	-.141*
남아의 성취동기							.548	.455***
상수	18.773		24.640		37.602		33.518	
R ²	.029		.009		.291		.320	
F	3.951**		1.170		24.941***		21.046***	

*p< .05, **p< .01, ***p< .001

<표 6>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어머니의 양육행동				여아의 성취동기		여아의 전체효능감	
	애정적		권위통제적		B	β	B	β
	B	β	B	β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	-.033	-.026	-.077	.077	.089	.060	.297	.166**
부모 역할 효능감	.255	.227**	-.126	-.137*	.176	.132*	-.108	-.066
양육행동 애정적					.492	.412***	.287	.197**
권위통제적					.313	.219**	-.284	-.162**
여아의 성취동기							.602	.488***
상수	18.328		26.300		36.179		25.414	
R ²	.047		.015		.194		.437	
F	6.641**		2.006		14.771***		34.913***	

*p<.05, **p<.01, ***p<.001

=-.141,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32.0%를 설명하였다. 즉 남아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이 높을수록,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이 적을수록 남아의 자기효능감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과 애정적 양육행동은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아에 대한 회귀분석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6>에 의하여 살펴보면,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경우, 애정적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beta=.227$,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4.7%를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역시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beta=-.137$,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1.5%를 설명했다. 즉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이 낮을수록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아의 성취동기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아의 성취동기에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beta=.412$, p<.001), 권위통제적 양육행동($\beta=.219$, p<.01),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beta=.132$,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19.4%를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권위통제적일수록, 부모역할 효능감이 높을수록 여아의 성취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은 여아의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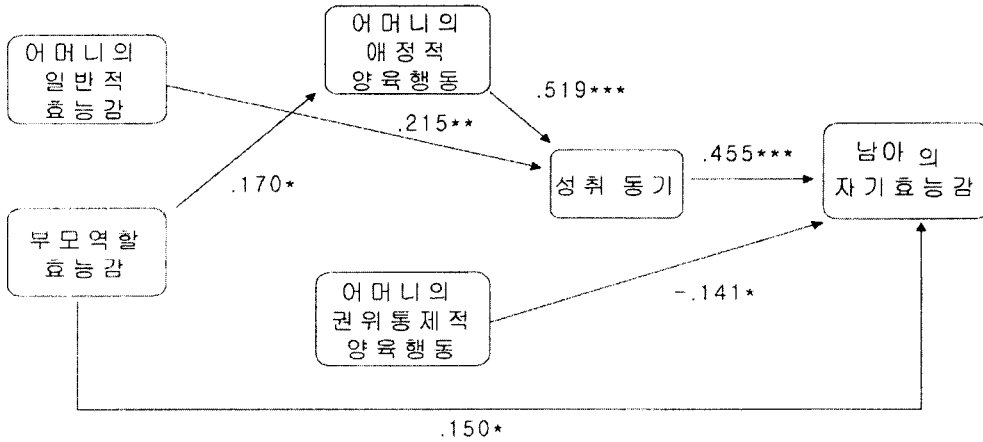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여아의 성취동기($\beta=.488$, p<.001),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beta=.197$, p<.01),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beta=.166$, p<.01), 권위통제적 양육행동($\beta=-.162$,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이 적을수록 여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은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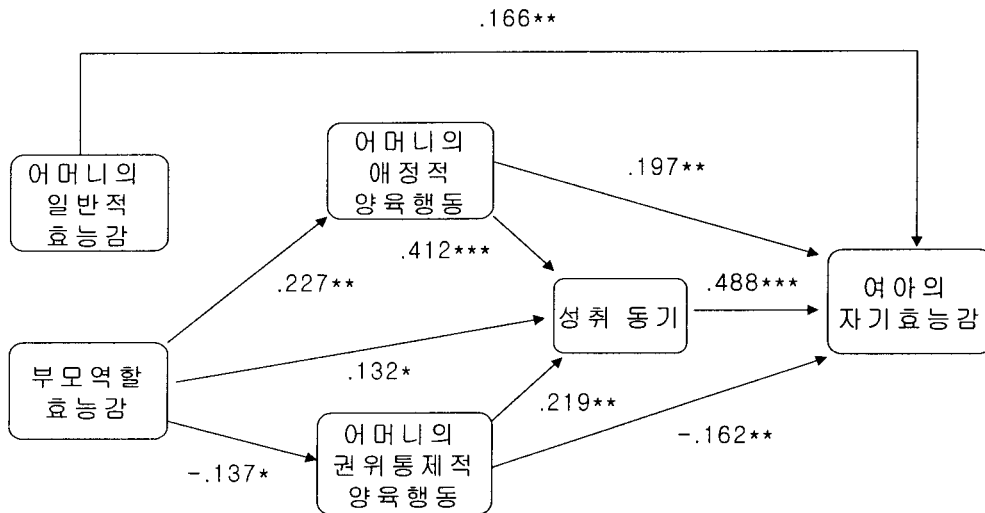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에 따라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경로분석한 결과는 남아 [그림 2], 여아 [그림 3]과 같다.

(1) 남아에 대한 경로분석

[그림 2]에 의하면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은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성취동기를 경유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은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성취동기를 경유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성취동기를 경유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은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남아의 성취동기는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



[그림 3]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경로분석모형

(2) 여아에 대한 경로분석

[그림 3]에 의하면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은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은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성취동기를 경유하여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취동기를 경유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역시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취동기를 경유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성취동기는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효과

[그림 2]와 [그림 3]을 종합하여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각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전체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효과만을 보이는 변인은 남아의 경우 남아의 성취동기와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이었으며 여아의 경우는 여아의 성취동기와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효과만을 보이는 변인은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과 애정적 양육행동, 여아의 경우는 어

<표 7>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효과

남아				여아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	-	.097	.097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	.166	-	.166
어머니의 부모 역할 효능감	.150	.040	.190	어머니의 부모 역할 효능감	-	.161	.161
애정적 양육행동	-	.236	.236	애정적 양육행동	.197	.201	.398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141	-	-.141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162	.106	-.056
남아의 성취동기	.455	-	.455	여아의 성취동기	.488	-	.488

어머니의 부모역할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전체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동의 성취동기는 남아와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 순으로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순으로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행동, 아동의 성취동기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과 인과효과를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일반적 효능감과 전체 자기효능감은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동안 남아와 여아의 전반적인 자기확신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기효능감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우회정(1993), Maccoby와 Jacklin(1974)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일반적 효능감이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다는 연구(이은숙, 1994)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아의 사회적 효능감은 남아의 사회적 효능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박정근, 2002; 윤병두, 1994; Wheeler, Ladd, 1982). 그러나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유능감의 성차에 따른 연구와 비교할 때 여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남아보다 높다는 연구결과(Ford, 1982)와 유사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전체적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아동의 성취동기,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이 높을수록,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이 적을수록 남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아동의 성취동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이 적을수록 여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가 남아와 여아의 경우 모두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선행연구(마경희, 1995; 박정근, 2002; 허영경, 1994; 황경숙, 2002)와 일치한다. 따라서 성취동기는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이 높을수록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어머니는 아동의 일차적 모델로 작용하여 아동은 어

머니의 행동 및 태도를 내재화하여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모방 학습하는 모델링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여아의 경우에만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동성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경연, 1987; 김용문, 1977; Long et al. 1968)와 유사하다. 이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자아개념 혹은 자아존중감 발달은 아동과 동성인 부모의 영향이 더 크다는 동성부모 모방이론(Bandura, 1986)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아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으므로 여아의 자기효능감과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에 따라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이 적을수록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덜 권위통제적일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선행연구(문혁준, 1999; 진은영, 2001)와 유사하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애정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에게 격려와 칭찬을 북돋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로 인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여아의 경우에 더 잘 설명되어진다. 반면 어머니가 자녀를 강압적이고 권위통제적으로 양육할 때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노호은, 2000)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행동, 아동의 성취동기의 상대적 인과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에게 공통적으로 성취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취동기가 높은 아동이 자기효능감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내적 의욕이 높은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취동기가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교사나 어머니가 아동에게 실패보다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

하고 성취동기를 증진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다음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 권위통제적 양육행동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아동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전체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면 성에 관계없이 성취동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애정적 양육행동은 남아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킴으로써 이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효과 뿐 아니라 성취동기를 경유하여 간접 효과도 나타났다. 이로써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여아의 경우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높은 부모역할 효능감은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더 애정적으로 하여 남아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이에 따라 남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그런데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더 애정적으로, 또한 덜 권위통제적으로, 그리고 여아의 성취동기를 높임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간접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이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된 동성부모 모방이론(Bandura, 1986)에 의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인 어머니의 일반적 자기 효능감은 남아보다 동성인 여아에게 모방효과가 직접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은 여아보다 모방효과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이 남아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유추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이 함께 포함되어 아동의 성에 따른 경로모형이 탐색된 후속 연구에서 더 명확히 설명될 수 있으리라 본다.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은 남아의 경우,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은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성취동기를 통하여 간접효과

도 나타나 전체적으로 부적인 인과효과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일반적 효능감과 전체 자기효능감은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아의 사회적 효능감은 남아의 사회적 효능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관련 변인들의 경로가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를 검토한 결과 남아와 여아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남아와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공통적으로 성취동기는 가장 큰 정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보인 동시에 인과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성취동기는 성에 관계없이 자기효능감에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과 부모역할 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 및 인과효과는 남아와 여아의 경우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은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직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큰 인과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은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큰 인과효과가 나타났다. 이로써 어머니의 일반적 효능감은 남아보다는 여아의 자기효능감에,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은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남아의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간접적 영향만 미쳤으며, 여아의 자기 효능감에는 정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에 관계없이 두 번째로 큰 인과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은 남아와 여아의 경우 모두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여아의 경우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성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중요한 보호요인이며,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은 위협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 중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만을 살펴보았다.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에 따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 아동의 성취동기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아동은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발달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격특성, 학교환경변인 등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성취동기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가정하였다. 그런데 자기효능감이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이들 변인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접근의 경로모형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행동, 성취동기

참 고 문 헌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자아존중·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문(1977). 부모이별경험과 아동의 자아개념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199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호은(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경희(1995).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의 관계.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1999). 아동기의 부모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1.
- 민숙정(199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정근(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병화(2002). 다변량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서울.
-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병두(199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1992). 딸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딸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농어촌의 여고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1994). 아동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우울성의 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199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미선(2002). 청소년기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가족변인.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4). 자기효율성의 특성에 관한 관련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6권, 2호, 16-28.
- 정인(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은영(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정서경험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인수(2001).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1982). 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영경(1994). 성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자기효율성 판단과 수행. 통제소재 및 성취동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경숙(2002). 초등학생의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영(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69). Social learning theory of identification processes. In Goslin, D.A.(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 Rand McNally.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el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117-148.
- Bandura, A (1995). 가경신, 윤운성, 정정옥역 ;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서울: 학지사(2004).
- Ford, M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Graybill, D (1978). Relationship of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to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Psychology*, 100, 45-47.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self-esteem. in P.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275-385, New York : Willey
- Jessop, DJ (1981). Family relationship as viewed by parents and adolescents: a specification. *J.of Marriage and Family*, 43, 95-107
- Long, BH, Henderson, EH, & Ziller, RC (1968).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self-concept during middle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13, 201-215.
- Maccoby, EE & Jacklin, C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 McClelland, DC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J. : D. Van
- Mussen, PH, Conger, JJ, & Kagan, J (197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4th ed.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INC.
- Mussen, PH, Conger, JJ, & Kagan, J (197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4th ed.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INC.
- Schunk, DH (1982). Effects of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on children's perceived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1), 93-105.
- Shaffer, D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5th). Childhood Adolescents* Pacific Grove: Brooks / Cole
- Sherer, M, & Maddux, JE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Teti, DM, & Gelfand, D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 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heeler, VA, & Ladd, GW (1982). Assesment of children self-efficacy for social interactions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95-85.

(2005. 06. 02 접수; 2005. 08. 15 채택)